원명스님은?

대구지역 불교활성화 헌신

구산-효봉스님 모신 '효상좌'



원명스님은 30년간 대구에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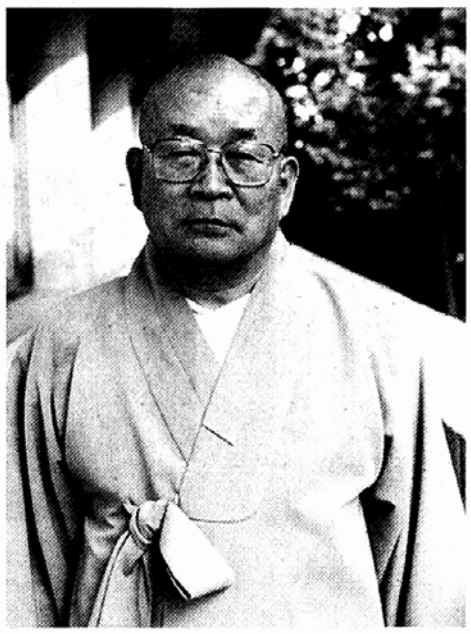
스님은 1981년 9교구 동화사 말사 이외의 조계종 사찰들의 모임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를 창립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1989년 불교대구교육원을 창립, 지역불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님은 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산하에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창립해 수성구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사암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영·호남 불자 5천여명이 참가하는 지역화합법회를 개최하는 등 망국적인 지역감정타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계율과 효사상을 항상 강조하는 원명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두 거봉이었던 구산스님과 효봉스님을 지극히 모신 '효상좌'로 이름이 높다.

스님은 송곳을 얼굴 앞에 놓고 용맹정진 수행했던 은사 구산스님과 절구통수좌로 불리웠던 효봉스님을 모시고 산 것이 큰 행복이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10여년간 입적하는 순간까지 효봉스님을 시봉했다.

스님은 193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하여, 1943년 금릉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대구보현사 주지 1978년 중앙종회의원 1979년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30여년간 지역불교 발전과 민족의 숙제인 영·호남 화합을 위해 힘써온 원명스님. 스님은 빨래나 청소도 손수 하실정도로 철저한 수행생활을 하고 계신다.

"불법은 실천입니다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

영원스님이 생각하길 '아하 우리 은사스님이 입적 하셨구나' 하고 금강산에서 범어사를 향해 걸었어요. 범어사에 도착하니 49재 날이 됐어요.

명학스님이 재산이 많으니 마을사람들에게 쌀 두가마니씩을 나눠줘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대한 49재가 열리고 있었지요.

49재가 무사히 끝나고 영원스님이 맏 사형에게 청하길 모든 대중을 명학스님의 창고 앞으로 모이게 해 주십시요' 라고 부탁해요.

사람들이 모이자 영원스님이 '명학동지 어서 나오시오' 하고 세 번 부르니 창고에서 뱀이 스르르 나와요.

그리고는 영원스님이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세 번 쳐서 죽여 버렸어요. 영원스님이 사형에게 말하길 '제가 스님 흔령을 모시고 갑니다' 하고 길을 떠났지요.

영원스님이 금강산으로 가서 자식없는 느부부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해 줄테니 10년후에는 반드시 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단서를 주고 명학스님의 혼령을 부부에게 줬어요.

영원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스님이 아이를 데려와 방문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법당 앞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소가 법당 앞에 올라올 때까지 쳐다보게 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이가 스님에게 '소가 법당앞까지 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니 그럼 눈을 구멍에서 떼고 돌아 보아라 하니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상좌였던 영원스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말하길 '내 상좌이구나. 네가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스님과 명학스님은 같이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처럼 출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가했으면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은사이신 구산스님 얘기를 들려줬다.

"은사이신 구산스님은 수도암 토굴에서 정진하실 때 직접 밭을 일궈 양식을 조달할 정도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행을 보였습니다. '일 수좌'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람불사나 울력에 솔선수범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상좌들도 자연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고, 일하는 가운데서 하심(下心)을 배울 수 있었지요. 또한 은사스님은 송광사에서부터 해인사로 또 동화사로 스승인 효봉스님을 모시고 직접 수발을 들 정도로 효성이 지극해 '효(孝) 상좌'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공부는 잘하지만 어른 모시는 것에는 인색하다며 예전에는 어른 모시고 사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요즘은 그러한 풍토가 사라져간다고 걱정하셨다.

"효는 백행의 근본인 만큼 효행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효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만큼 중요한 덕목이지요."

"출가자가 도를 이루는데도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과를 깊이 믿어야합니다. 인연으로 인한 과보의 상응함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결정된 업은 실제로 피할수 없는 것임을 알고 막행막식하는 것을 삼가야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믿는 것은 연기의 도리를 밝혀 아는 전제가 되기도 하지요. 또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은 있지만 다만 망령된 생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능히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항상 동요하고 있으며 생각 생각에 분별심을 내어 업장을 두텁게 하니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도리를 굳게 믿고 일체를 놓아 버려서 사사로운 정과 망념이 자기의 참된 본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수행방편을 결정해서 곧 바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화두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경학도 좋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두들기기만 한다면 결코 도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며 금생에도 또 내생에도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 사람의 됨됨이 효심이 척도입니다"

스님은 관음사에 기도하러 오는 불자들에게 살면서 항상 참회하며 세세생생토록 보살이 되도록 발원하라고 한다며 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신다고 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항상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따라오지요. 마치 형태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 예불을 모시고, 오전에는 신도들과 기도정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 타파운동에도 몸소 나서 활동하고 계신다. 스님은 16년 전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지역을 상호방문하는 형태로 화합 교류법회를 봉행해 오고있다.

지난 6월 8일에도 성철스님 생가인 산청 겁외사에서 영호남 불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공사구별이 분명하다. 관음사에 들어오는 불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찰불사금은 모두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회향된다. 또 편지봉투도 뒤집어서 풀칠해 다시 사용할 정도로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스님은 지금도 웬만한 빨래와 경내 주위 청소도 손수 하실 정도로 철저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맏 상좌인 동진스님(칠곡 망월사 주지)은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항상 지계를 강조하신다."며 "은사스님이 철저한 지계로 수행을 해오신 것은 그대로가 상좌들에게 무언의 교훈이 되어오고 있다"면서 "은사스님이 지역 포교를 위해 30년간 바쁘게 일 하시면서도 매일 기도수행을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했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수보스님

수보스님을 아는 이들은 모두 그를 '하심(下心)보살'이라고 부른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누운 풀처럼 한결 같기 때문이다. 하심의 자세는 아만과 아집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어떤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태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그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으로 하심을 보여준다. 그를 알고 지낸 지난 10여년 동안 누구와 다투는 일을 좀처럼 보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면 분명 화를 낼 상황인데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경계를 잘 다스리는 힘이 그에게는 있다.

바다는 잔잔하지만 바람을 만나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 역시 어떤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일상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상황을 만나면 통제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다.

수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경계는 알고보면 일종의 '거짓 감정' 같은 것이다. 상황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이러한 경계는 자신의 수행을 시험해보는 복병과 같은 것이다. 수보스님이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쉽게 끌리지 않고 평상의 마음을 잘 볼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지런-절약-깨끗-절구통 한결같은 수행자의 참모습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할 때의 일이다.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먼 곳에서 수보스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20대의 여인이었는데 빗속을 걸어 힘들게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우중의 그 손님을 일주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선실로 돌아왔다. 어둑어둑하던 그 시각에 다시 산길을 내려가게 만든 그의 인정이 너무 매몰찬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안 일지만, 그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그의 고뇌를 알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색정의 마장을 그는 그렇게 수행자의 비정한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수보 스님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기가 질릴 만큼 부지런하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무슨 일이건 두닥거린다. 그가 머무는 부산의 절에 가보면 방은 물론이고 마당 곳곳에도 티끌 하나 없다.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하는데 마당이 깨끗한데도 비질을 한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독살이 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도량의 가풍은 늘 긴장이 살아있는 총림의 대중살이 같다. 그리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 전등 하나라도 환하게 밝히지 않고 꼭 필요한 등만 켠다. 가끔 늦은 밤 그의 절을 방문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다. 법당 앞 석등의 불빛이 칠흑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지만 이 또한 보름달이 환한 날이면 켜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가 마치 꼬장꼬장한 노스님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수행자세는 아마도 몇 년 전 입적하신 그의 은사 문성 노스님의 덕화 때문일 것이다. 100세를 사시면서 하루도 예불과 울력을 거르지 않았던 노(老) 스승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한인 시절 어쩌다 그의 절에 걸망을 푸는 날이면 노스님의 경 읽는 소리에 새벽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단 하루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노스님의 일과에 견주면 수보스님의 이런 행동은 게으른 일상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이 절에서는 목침을 쓰고 있다. 편안한 베개를 쓰면 꿈이 많아지고 마(魔)가 치성한다는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옛부터 절집에서는 딱딱한 목침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솜 베개가 많아지는 세태다. 목침을 베고 잠든 그를 보면 한 스승이 남기는 사상과 가풍이 후학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수행의 근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수보스님이 목욕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깔끔한 성격이다. 밥을 먹다 음식물이라도 옷에 묻으면 곧바로 빨래를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목욕도 자주 한다. 목욕 시설이 좋은 선방에서 살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씻는다. 그래서 그가 안보이면 욕실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그의 때밀이 실력은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같이 정진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그와 함께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 아주 시원하게 때를 밀어준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목욕시키듯 정성을 다하는 그에게 한번씩 등을 맡기고 있으면 인간적인 정을 듬뿍 느끼게 된다.

수보 스님은 안거철마다 빼놓지 않고 선방에 나가 공부한다. 평소의 그 부지런함이 선방에 앉으면 화두에 매진하는 일로 바뀐다. 절구통처럼 앉아있는 그를 생각하면 수행하는 일이 따로 정해진 일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밥먹는 일부터 목욕하는 일까지 그에게는 온통 수행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체육복을 입더라도 수행자다. 무엇을 하더라도 수행자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가 바로 수보스님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 요가 (신간!)

라마 키지 다와삼둡 번역 | 에반스 웬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마르파·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의!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웬츠의 티벳 라이브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웬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키지 다와삼둡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좌·물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407)/ 팩스: (02)747-7034/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우체국·농협 지로번호: 3006577, 홈뱅킹: 009-21-1159-604(국민은행, 예금주 송순현)

정신세계사·월간 정신세계·해탈 정신세계·정신세계원 | www.mindvision.org
전화 747-7033 / 팩스 747-7034